

韓國統計의 現況과 將來一農業統計

〈討 論〉

崔 龍 圭*

張박사께서 農業統計의 現況과 將來에 대하여 상당히 여러 分野에 걸쳐 상세한 問題點을 지적해 주셨다고 봅니다.

특히 根本的으로 必要한 地籍圖와 土地台帳의 미흡함이나 精度높은 地域統計의 發展 및 人員 및 裝備의 不足등에서 오는 非標本誤差의 問題點등 우리나라 農業統計가 풀지 못한點을 지적하셨고 反面 짧은 歷史의 農業統計의 發展도 함께 소개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저自身 이렇다할 水準에 있지 못하면서 張박사님의 玉稿를 어떻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또 두렵기도 하지만 農業統計를 部分的이나마 實務에서 여러해 동안 다른 經驗으로 張박사님의 發表內容中 몇 가지를 저나름 대로의 意見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精度높은 市郡單位의 地域統計의 必要性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地域統計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市郡單位까지 作成하자면 엄청난 費用과 人員을 要求하게 됩니다. 따라서 現在보다 몇배나 되는 規模가 要求되므로 不可能하다고 봅니다. 또한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中央政府가 그와 같은 地域統計까지 作成해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必要한 地域單位에서 自體豫算과 人員으로 해야만 한다고 하겠으니다만 現實的으로 作成能力이나豫算, 人員, 統計에 대한 認識등의 不足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둘째로 지적하신 作物生產統計에서의 刈取面積이 一律的으로 3m²로 하여 作物種類에 따라 달리하거나 水稻의 경우는 8~11m²(約 3坪)가 되어야 한다고 試驗結果의 C.V를 比較하여 지적 하셨습니다만 이점은 두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刈取面積의 擴大에 따라 같은 業務量을 假定한다고 하더라도 한 團區의 面積이 커지려면 전체의 團區數가 줄어들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全國的인 規模로 볼때 전체적인 CV가 과연 줄어들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며 또 줄어진다고 하드라도 어느 程度의 水準이 될 것인가는 實際 해보아야 알겠지만 크게 염려할 水準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現在의 標本團區로 選定된 農家가 이를 바라지 않고 있는 實情인데 이와 반대로 刈取面積을 擴大한다면 더 큰 反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農產物生產費調查에서 土地用役費의 5% 適用과 資本用役費의 適用利子率의 調查마다 相異할 뿐아니라 source別로 調查가 必要하다고 指適한 점입니다. 먼저 土地用役費 5%適用에 대해서는 이미 發表한 바 있습니다만 5%만 適用하드라도 우리나라 農業生產費의

* 農水產部研究官室

50%(水稻의 경우)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問題點이 있으며 地價上昇을 감안하면 定期預託과 거의 같은 水準으로 나타나 큰 問題가 없다고 보겠으며 그 밖에 資本用役費에 대해서는 Source別 調査는 實査上 이의 分類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機關別 調査마다 適用利率이 다르다고 한 점은 하나의 作成機關에서 一律的으로 定할 수 없으며 이는 利用者가 必要한 것만을 골라서 쓸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張박사님의 發言內容中 몇 가지만 問題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저 個人的인 私見을 이자리를 빌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實務的으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標本調查하는데 執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標本調查는 調査의 精度를 알 수 있기에 便利하기도 하고 客觀的인 信賴性등이 부여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人員과 費用을 要求하기도 합니다. 또한 標本誤差가 실제로 얼마나 利用되는가 하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대신에 특히 生產量統計에서 截取보다는 그 方面에 多年間 經驗이 있는 그 地方住民, 또는 公務員들이 Field에서 目測이나 達觀만으로 單位學 生產量을 推計하는 方法으로 轉換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다 먼저 政府統計가 發展한 華蘭이나 펜마크등에서 不足한 人力과 費用으로 이를 훌륭히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人員과 豫算의 절감효과도 얻을 뿐 아니라 그 여력을 새로운 需要의 農業統計 例를 들어 流通統計나 農業觀測등의 開發과 發展에 利用할 수 있다고 생각 되어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나라 農業統計 發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